

해운대구민들의 동해선 이용불편 해소방안 촉구



정순세 의원
(비례대표)

동해선은 우리 해운대구뿐 아니라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5개 구·군을 연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2단계 개통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재송·반여 지역에서는 도시 철도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평상시에는 1시간에 겨우 2회 정도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부산도시철도는 평상시에 6분 정도 간

격인데, 이에 비해 동해선 배차 간격은 너무 길다. 뜻있는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 부산시와 코레일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 출신 및 정치인들에게도 건의하였으나 책임 부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며, 이용객이 적어 적자 운영이라 배차 및 증차 간격을 줄일 수 없다고만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 이용객들은 동해선이 기존 도시 철도나 경전철처럼 대기 시간이 짧다면 얼마든지 이용하겠다고 한다. 동해선을 타고 싶어도 한 번 놓치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기에 차라리 버스를 타고 2호선이나 3호선으로 환승을 한다고 한다.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처음 도시 철도가 들어온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막상 개통을 해 놓고 보니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이용하는 데 출·퇴근 시 한 대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점점 이용률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코레일에서는 김해 경전철보다 못한 이런 전철을 적자와 예산 타령만 앞세워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 행정의 전형으로 보아지며 감히 정부가 추진하는 신뢰 행정, 복지 행정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이를 보다 못한 지역 출신 시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정책 질의 등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도 관계 당국은 관심 없는 듯하다. 우리 구에서라도 주민의 동해선 이용 불편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현청사 활용방안과 예산에 대하여



김경호 의원
(우1동, 중1동)

현 청사는 지난 1980년 4월 27일에 준공된 이후 여러 차례 증축했음에도 공간이 부족해 별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에만 급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 청사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의 여부다. 인근 주민이 만족하는 현 청사 활용방안, 대안을 세운 후에 이전하겠다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은 절대 없다고 구청장도 수차례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런데 현 청사 활용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바 있고, 10월에 심사 결과 재검토로 반려되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 청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1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상정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재검토 사유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사전에 인근 주민, 상인, 단체원들에게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자치위원회나 단체 회의에 찾아가 설명하는

게 반려 사유를 치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청회 계획을 세워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참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세대로 라면 신청사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착공을 하고 2~3년 내에 청사를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 사이 현 청사 활용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현 청사 주변은 공동화 현상으로 곧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주민이 만족하는 현 청사 활용방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인근 주민과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사 이전만 밀어붙인다면 이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신청사 이전을 하겠다면 구청장은 주민들께 약속한 대로 현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신해운대역 KTX-이음 정차 확정



김상수 의원
(중2·좌2·송정동)

해운대~청량리를 잇는 준고속열차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차와 관련해 현재 진행 과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신해운대역 준고속열차 KTX-이음 정차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되었다가 2024년으로 연기되었다. 청량리에서 신 경주역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전체 구간 가운데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계획되면서 우려가 컸다. 최근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안동~영천 구간도 복선화가 확정돼 전체적으로

시간도 단축되고 편수도 늘어나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지역 공약 1호로 내세웠던 KTX급 준고속열차가 신해운대역을 경유해서 해운대~청량리까지 3시간에 달리는 공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 노선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보다 4시간가량 단축된 것으로 부산역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KTX-이음 중앙선의 신해운대역 정차를 수용했다. 다만, 백스코역은 단선인 시설 여건상 정차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운대구는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백스코 주위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백스코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 재차 요청을 했으나 단선의 시설 여건과 운행 시간 증가 등의 사유로 백스코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TX-이음 열차의 센텀역과 신해운대역을 교대로 정차 운행하여 원활한 수송과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정차를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해운대 을 주민들은 현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센텀역을 교대로 정차 운행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국책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신해운대역으로 확정되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린시티 주민들은 신해운대역 KTX-이음 정차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태경 의원과 지역구의원들을 믿고 기다려주면 신해운대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본 의원은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 해결사 119가 되겠다.

신시가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용역에 대한 제언



임말숙 의원
(좌1·3·4동)

신시가지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용역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영역에서만 가능한 부분으로 수천억 원이 드는 민간영역 개선은 애초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등 공간적 범위를 과대 포장했다. 표방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은 말뿐인 목적이었다.

둘째, 스마트 도시로 만들려면 공공 기반 시설을 우선 스마트하게 교체해야 한다. 그린시티는 26년이 지나 특히 노후화된 열수

송 배관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데, 보여주기 식의 국민체육센터 확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셋째, 구청장이 말한 자급자족의 도시는 무엇인가? 신시가지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베드화, 잠자는 도시다. 그래도 준고속철도 EMU260이 신해운대역에 정차한다고 해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계획에는 퍼스널 모빌리티활성화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어르신과 여성이 많은 그린시티에 PMI가 과연 효율적인 교통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현실적 타깃 설정이 허구라고 생각한다. 준고속철도의 신해운대역 정차 후 역에서 시내와의 연결 방안 및 대안이 왜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신해

운대역과 백스코역 또는 센텀역에 동시 정차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교통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실제 2019년 10월 부·울·경 교통지역 실무협의회에서 구청의 백스코역, 신해운대역 정차 건의에 총 운행 시간 증가로 정차 곤란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2020년 3월에 왔음에도, 백스코역에서 센텀역으로 변경해 2020년 8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국토교통부에 4차례 방문하여 센텀역 정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당장 센텀역 정차 요구를 멈춰주길 바란다.

넷째,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인데, 용역의 어디에도 문화는 없다. 그린시티는 대부분 아파트라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데, 메신저 문화 등의 기반 시설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메타버스, 가상공간 등을 활용한 도서대여, 공연 등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콘텐츠도 필요하다.